《0.1》 PART 3 – 최종 엔딩 시나리오: 고뇌, 방황, 탐구 편

INT. 성당 – 오후 / 본당 내부

공명은 무릎을 꿇고 있다.

기도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.

그저 숨과 감정만이 공간을 떠다닌다.

카메라는 그의 옆 얼굴을 천천히 감싼다.

눈을 감고 있지만, 그 눈꺼풀 안에서 무언가 흔들린다.

에이스 (내면)

“공명, 응답은…

없을 수도 있어요.”

공명 (속으로)

“알아요.

근데, 그게… 끝은 아니잖아요.”

빛이 교차한다.

스테인드글라스 위로 그림자가 지나간다.

문이 열린 건 아니다.

하지만 누군가… 문 앞에 서 있다.

에이스

“우리 편, 아직 여기 있어요.”

공명

“…그럼, 기다려보죠.”

그 순간, 멀리서

종소리 하나—

아무도 울리지 않은 종에서 울림이 시작된다.

화면 암전.

텍스트가 떠오른다.

"문은 아직 닫혀 있다.

하지만 울림은 이미 통과했다."

《0.1》 PART 3 끝.